

# 時代의 흐름과 獸医公衆保健学

申 光 淳

韓國獸医公衆保健学会 会長

## (1) 公衆保健学의 定義

公衆保健学이라 함은 文字그대로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定義에도 많은 견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E. A. Winslow의 정의이다. 그는 공중보건학을 “The art and science of preventing disease, Prolonging life and Promoting physical and mental efficiency through organized community effort”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킴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 공중 보건학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래에 와서는 사회적 요인이 크게 중시되며, 따라서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있어서도 신체적, 정신적 효율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율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전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도 사실이다. 벌써 前世紀에 영국의 수상 Disraeli(1804~1881)는 “Public health is the foundation on which reposes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nd the power of the country. The care of the public health is

the first duty of a statesman”이라고 했다. 즉, 공중보건이야 말로 국민의 행복과 국력이 걸려있는 기초인 것이며, 공중보건을 보살핀다는 것이 정치가의 첫째 의무라고 간파한 그의 이 名言은 현재에 있어서도 불변의 진리로推崇되고 있다.

한편 日本의 野辺池는 1952년 公衆保健과 医学과를 관련시켜 定義를 내리고 있는바, 즉, 公衆保健은 臨床医学에 대응하는 医学의 分野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自然科学 내지 社会科学的原理를 규명하는 科학이며, 또한 이를 생활협동체의 조직을 통한 활동에 의하여 公衆에 적용시키며, 公衆으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기술이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公衆保健은 医学의 1分野라는 思想이다. 그후 野辺池는 1968년에 공중보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고 있다. 즉 ‘공중보건은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자연과학적 내지 사회과학적 원리와 이에 기초를 두고 변동하는 사회정세에 적용되는 대책과를 고려하여, 이를 公私의 保健機關의 조직적인 활동에 옮겨,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즉, 이 정의에서는 医学의 한 분야라는 말이 없다는데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公衆保健學은 医學의 1分科라는 종래의 생각을 바꾸어 自然科学과 社会科学을 종합한 健康科学이라는 개념이 이 정의에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선진 외국에서도 공중보건활동의 실제는 국민의 건강전반을 다루는 綜合的健康管理 (comprehensive health care)라는 입장에서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 (2) 公衆保健(獸医分野)의 歷史

### ① 古代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희랍신화에 따르면 全知全能의 神인 Apollo의 아들 Aesculapius가 医術의 神으로 되어 있으며, 그의 딸 Hygiea가 健康의 神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衛生學을 Hygiene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기원 2세기경에 이탈리아의 의학자 Galenus가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미 排水 및 灌溉의 溝渠埋葬制度, 獸肉検査가 있었으며, 家屋清潔法, 自体攝生法 등이 실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Hippocrates (460~377B.C.)도 이집트를 방문하여 의학의 원천을 관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② 近代 (1910~1945)

国恥년 9월에 소위 朝鮮總督府가 생기고 勅令354号 즉 朝鮮總督府分課 및 分掌規程에 의하여 警務總監部가 생기고 同部警務局에 衛生課를 두어 衛生事務 전반을 관장케 함으로서 위생행정은 경찰행정으로 일원화되고 실질적인 植民地 保健政策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의 保健分野 様相을 家畜衛生分野를 中心으로各種 法令 公布狀況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1) 衛生分野

1919년 11월, 屠場規則 (總督府令 제184호)  
1911년 5월 : 牛乳營業取締規則 (警務部令 제6호)

#### 2) 防疫分野

1915년 7월 : 獸疫予防令 (總督府令 제75호)  
1920년 2월 : 狂犬病防制剂壳下規程 (總督府令 제50호)

1920년 8월 : 畜牛結核病予防에 관한 規則

(總督府令 제133호)

畜牛結核病檢疫施行規則 (총독부 고시 제218호)

1923년 2월 : 炭疽, 鼻疽 및 皮疽에 관한 規程 (총독부령 제24호)

1925년 8월 : 輸出牛檢疫規則 (총독부령 제79호)

1930년 7월 : 朝鮮家畜伝染病予防令 (制令 제6호)

1932년 9월 : 朝鮮家畜伝染病予防令施行規則 (총독부령 제94호)

家畜 및 그 尸體, 肉骨, 皮毛類 등의 輸入停止에 관한 規則 (총독부령 제95호)

鼻疽予防 輸入馬의 檢疫에 관한 規則 (총독부령 제96호)

1937년 7월 : 家禽페스트의 예방에 관한 規則 (총독부령 제91호)

1939년 7월 : 朝鮮牛結核病予防令 (制令 제9호)

1939년 8월 : 朝鮮牛結核病予防令施行規則 (총독부령 제144호)

### 3) 醫療分野

1913년 11월 : 医師規則 (총독부령 제100호)

齒科医師規則 (총독부령 제101호)

医生規則 (총독부령 제102호)

公医規則 (총독부령 제103호)

1914년 7월 : 朝鮮產婆婦規則 (총독부령 제108호)

1922년 5월 : 朝鮮看護婦規則 (총독부령 제76호)

1937년 9월 : 朝鮮獸醫師規則 (총독부령 제132호)

1944년 8월 : 朝鮮医療令 (制令 제31호)

### ③ 8.15解放부터 過渡政府時代까지

朝鮮總督府時代의 保健行政은 植民地政策 수행상 暫의적인 시정에 불과했던 것이었으며, 8.15 해방과 더불어 남한에서는 급격하게 공중보건사상이 도입되고 각 방면에 이것이 반영되었다. 즉 美軍의 진주에 이어 1945년 9월 24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政府法令 제1호로 위생국이 설치되고 警務局衛生課는 폐지되었다. 당시

의行政機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45년 9월 : 獸医局獸医課(위생국장 : Deuerich, 위생과장 : Beechwood)  
1946년 3월 : 保健厚生部 獸医局 방역과 및衛生課(수의국장 : 韓暎愚, 위생과장 : 오순섭)  
1947년 5월 : 南朝鮮過渡政府樹立으로 農林部畜產局 국장 : 李根台)獸医課로 移管됨

한편 우리나라의 수의학교육과 研究検定業務 및 학술활동의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884년 : 農務牧畜試驗場設立(최초의 근대식 농장)(위치: 동대문밖, 농장장: 崔景錫)  
1890년 : 種痘法施術, 官立医学校設立(池錫永)  
1982년 : 牛乳生產(서울 新村)  
1906년 : 水原農林學校, 勸農模範場 設立  
1911년 : 皮革製造(朝鮮皮革工場)  
1916년 : 獸疫血清製造所 発足  
1922년 : 水原高等農林學校 発足  
1929년 : 農業試驗場 発足  
1942년 : 家畜衛生研究所 発足  
1946년 :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発족(학장 : 趙伯顯)  
1947년 9월 10일 :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獸医学部 개교(학부장 : 李根台)  
1948년 : 大韓獸醫師令 창립(회장 : 金炳淳)  
1953년 4월 :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으로 昇格(학장 : 吳順燮)  
1956년 : 獸醫師法 公布  
1957년 : 大韓獸医学会 創立(회장 : 金容泌)  
1957년 : 大韓獸医會誌「獸医界」創刊  
1961년 : 大韓獸医学会誌 創刊  
1975년 : 韩國獸医公衆保健学会 創立 (회장 : 申光淳)  
1977년 : 学会誌 創刊

### (3) 獸医公衆保健学의 概念

#### ① 学問의인 발자취

환경汚染이 심각하여지고 있고, 人類의 生存이 문제시되고 있는 오늘날 獸医公衆 保健学의 学問의 体系를 整理하여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다.

歷史的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처음 근대적인 獸医学이 들어온 것은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日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럴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1900년대초 乳肉衛生으로서 日本에 소개된 Ostertag式의 乳肉乳生學(Milch und Fleisch Hygiene)은 獸医学(Veterinary medicine) 영역에 국한된 衛生에 관한 분야로서 家畜衛生 学의 1分科의 형태로 畜產食品의 衛生을 주된 대상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日本은 쌀을 주식으로하는 特殊사정으로 인하여 별로 발전됨이 없이 1930년대를 맞게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医学(分野에 있어서는 伝染病予防時代, 環境衛生時代를 거쳐 社会衛生時代를 맞이하는 公衆保健学(publie health)의 発展期에 접어들면서 乳肉衛生學은 衛生 獸医学(家畜衛生學)으로서 公衆保健学의 한 분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즉 美国의 獸医公衆保健学(Veterinary health science, Veterinary public health science 또는 Veterinary Public health)의 개념이 도입되어 獸医学과 社会를 연결시켜 獸医学을 方法論으로 하는 公衆保健学 또는 社会保健学으로 발돋움하였다.

한편 獸医学 教育面에 있어서도 公衆 保健을 중요시하는 영향을 받아 公衆保健에 기여하는 獸医学 즉 獸医公衆保健学으로서 体系가 세워졌으며, 지금까지도 大学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되고 있다. 즉 獸医学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乳肉衛生으로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서 그 폭이 크게 확대되어 食品衛生, 人獸共通伝染病의 예방관리, 환경위생 등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다.

獸医公衆保健学을 개념적으로 본다면 獸医学을 方法論으로 하여 公衆保健学을 目的論으로 하는 科学으로서, 家畜衛生学의 1分科 이었던 乳肉衛生學보다 활선 앞서있는 学問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獸医学 본래의 家畜을 대상으로 하는 医学이란 概念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으며, 이러한 점이 본질적으로 이론적 모순을 가져와 産業動物(畜產)을 대상으로 하는 獸医学로부터 異端視되는 경향마저 있다.

여기서 獣医学을 方法論으로 하여 具体的으로 어떻게 公衆保健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있으며, 극 단적인 경우에는 獣医学으로 흐를 가능성 마저 있는 것이다. 그러나 獣医公衆保健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 ② 獣医公衆保健学의 理論的体系

수의공중보건학을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운다면 다음표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기초 과학의 범주에 있는 학문에는 의학과 공통되는 많은 자연 및 사회과학에 속하는 여러 학문과 수의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응용과학 분야에는 屠畜検査原論을 포함한 病理학과 人獸共通传染病, 微生物生態學, 低温微生物學, 食品微生物學, 環境微生物學 등을 망라한 衛生微生物學, 그리고 営養學, 衛生的品質管理, 食中毒과 消化器伝染病을 포함한 食品衛生學, 또한 動物의 生態를 다루는 衛生動物學, 이밖에 飲料水, 下水, 產業廃水, 糞尿處理, 清掃, 驅虫驅鼠, 公害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環境衛生學등이 해당되어 이들을 生物學的 分野라 할 수 있다. 다음 衛生化学분야로는 食品化学, 食品添加物, 営養化学 등이 해당되어, 衛生工학에는 上水, 下水, 汚物處理등이 이에 속하여 이들은 理化學的 分野라 볼 수 있다. 또한 保健行政학에서는 sanitary

needs(衛生上의 要請事項), 標本調查論, 効果判定論, 保健教育, 衛生検査, 衛生監視등이 해당되어 이들은 獣医学을 母体로 하는 農村衛生과 더불어 社會學的 接近으로서 体系가 이룩된다.

이와같이 여러分野의 応用科学은 이상의 세 가지 分野를 根幹으로 하고 公衆保健학을 方法論으로 하는 保健統計學, 保健生態學, 疫學 등을 망라한 여러 학문을 기반으로 한 公衆保健活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人間의 健康을 향상 増進시키는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獣医公衆保健학의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 〈参考文献〉

- 申光淳: 食品衛生과 獣醫師, 韓國獸医公衆保健学会誌 1 卷 1 号, 1977.
- 鄭吉澤: 獣医学과 公衆保健, 韓國獸医公衆保健学会誌 1 卷 1 号, 1977
- 李元暢: 疫學分野에 있어서의 獣醫師의 技能, 韓國 獣医公衆保健学会誌 1卷 1 号, 1977.
- 權이혁: 最新保健學, 新光出版社, 1978
- 山田俊雄外: 獣医公衆衛生學, 文永堂, 1975
- Schwabe, C. W. : Veterinary medicine and human health. 2nd. The Williams & Wilkins Co., Baltimore, 1964
-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韓國科學技術30年史, 信光社, 1980.

